

● 일본의 양계소식

산탄부

□ 계란자주기금해산

(사)일본양계협회계란자주기금사업부는 2월 26일 동경에서 제 15회 임시총회를 열어 계란자주기금의 해산 등을 의결하였다. 인사에 나선 우매하라(梅原)간사장은 1991년에 설립하여 13년이 경과한 동 기금의 사업을 되돌하보면서 「새로운 일본계란생산자협회가 설립되어 자주기금이 해산하여도 그 이념이나 사업내용은 일본계란생산자협회에 계속할 것」 등을 연설하였다.

무라이시(村石)회장에게 심의한 계란자주기금의 해산이나 2003년도 사업보고, 수지결산 등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이 기금은 3명에 의해 집행되어 잔여재산(약 6억3천만원)은 일본계란생산자협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하여 (사)일본양계협회의 특정재산회계에 이월하였다.

이후 일본계란생산자협회의 활동은 조류독감이나 저난가 등의 대책에 대하여 총력적인 요청활동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13년간에 걸친 사업부 활동 협력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조직에서도 힘을 합하여 국제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회원에게 기대한다」는 등의 연설로 폐회하였다(계명신문).

□ 4월 18일 계란 훼스티발 개최

(사)도오쿄도란업(東京都卵業)협회는 매년상례의 「계란훼스티발」을 오는 4월 18일 오전 11시부터 도오쿄·신주쿠역 서쪽역 광장 이벤트 코너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훼스티발은 매년 기독교의 부활절에 개최하였으나 금년에는 개최장소의 사정으로 1주간 늦어지게 되었다. 2월19일에 열린 대책회의에서 출석한 협찬예정기업의 담당자에게 「저난가와 조류도감 등으로 어려운 환경이므로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면서 협력을 요청하였다.

21년째가 되는 이번에는 계란성금모금(100엔모금, 복지단체 기증)을 실시하는 이외에 협찬기업의 기업계란과 계란가공품의 표시·설명, 계란관계 팜프렛, 풍선배포, 양호시설 등으로의 계란증정, 맑은그림선물, 계란설문조사 실시, 계란관계비디오방영, 기념도장찍기, 계란인형 등의 전시를 통하여 고령화사회에서의 영양원으로 양질의 국산계란을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소비확대를 유도 한다(계명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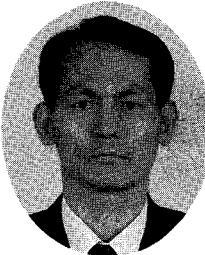
□ 2003년 계란소비 0.7% 감소

지난 2월 10일에 발표한 2003년 1~12월의 가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1가구당(세대원 3.19명) 계란 구입량은 32.745K으로 전년보다 0.7% 감소하여 11년 연속 전년도를 감소하였다. 지출금액은 난가최저로 8,085엔으로 전년대비 94.6%였다. 마요네즈·드레싱의 구입량은 4.759Kg 지축금액은 2,850엔으로 전년대비 각각 0.6% 감소와 0.1% 증가로 집계되었다(계명신문).

표. 동경계란가격

(단위: Kg/엔, 일본 계명신문 발췌)

크기	LL	L	M	MS	S	SS	입하량
가격	125	135	135	130	125	70	920t



윤 병 선

한경대 KRRC 전임연구원/농학박사



육·제

□ 거미 구제용 옵티마이드(オプティマイド) 신발매

노발티스애니멀헬스(ノバルティスアニマルヘルス)(주)에서는 살충제 성분을 전연 포함하지 않는 드라이겔테크놀러지(ドライゲルテクノロジ?)에 의한 안전·안심 할 수 있는 환경위생제어자재(거미용)「옵티마이드」를 발표하였다. 옵티마이드는 영국 소렉스인터내셔날사가 독자의 드라이겔테크놀러지(특허취득)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살충제와는 전혀 다른 소수성실리카를 주성분으로 한 제품이다.

거미가 옵티마이드에 접촉하면 소수성실리카가 다리와 몸통의 접합부에 들어가 외부골격관절의 움직임을 멈추어 활동할 수 없게 만들어 죽게 한다. 지금까지의 살충제로 저항성을 갖은 거미에 대해서도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옵티마이드의 주요 특징은 (1) 거미의 야간활동 습성을 이용하여 특수 실리카가 거미를 구제, (2) 거미피해에 의한 산란을 저하를 개선을 기대, (3) 거미에 의한 계란오염의 억제 기대, (4) 산포면의 부착성이 뛰어나고 끈적거리지 않는다, (5) 옵티마이드는 살충제의 대용하는 안전한 제품으로 거미를 구제, (6) 상황에 따라 최장 12주간의 지속성 기대 등이다.

사용량은 통상 20m² 당 1l이고 거미가 숨어있는 구석이나 균열홈에는 10m² 당 1l를 산포하는데 그때에는 뱃데리 분무기나 수동분무기, 또는 노즐 사용을 권장한다(계명신문 발췌).

□ HPAI 방역매뉴얼 일부 개정

농림수산성은 3월 10일 HPAI(고병원성가금인플루엔자) 방역매뉴얼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지난 3일 개최된 제5회 가금질병소위원회에서 방역상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개정한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개정된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HPAI 인프레인저의 발생예방조치를 위하여 닭사육자, 사육자단체, 도도부현(都道府縣), 수의사 등이 유의해야 할 점을 추가, (2) 이상한 닭이 발견되면 조류독감의 증상이 다양하므로 폐사수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곧바로 가축보건위생소에 통보할 것을 규정, (3) 보조적검사로 조류독감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도 국가, 지방관계기관에 연락할 것을 규정하고 조류독감으로 확정되었을 때 공표하도록 규정, (4) 방역작업에 있어서 방역종사원에 대한 공중위생상의 조치규정, (5) 이동제한개시시의 이동제한범위를 원칙적으로 반경 10Km의 구역으로 하고 위생관리과와 협의하여 반경 5~30Km 범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이동제한의 기간은 최종발생에 관계되는 방역조치의 완료 후 21일 이상, (6) 이동제한구역내에서의 보관시설 등의 가금알의 이동에 대해서는 방역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보관, 소각 등을 위하여 이동제한구역내 농장유래의 가금의 알, 배설물의 이동을 허용, (7) 발생농장 등으로부터 도계처리장 등으로 출하된 가금에 발생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대응에는 주변 5Km의 가금사육장의 가금에 대하여 이동자숙을 요청하고 청정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동자숙을 해제, (8) 계란이나 계분을 가열이나 발효등에 의하여 충분하게 처리된 가금의 알이나 배설물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방역상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구역내·외로의 이동을 허가(계명신문).